한국농어촌公보성지사 '농촌 집 고쳐주기' 활동

보성=임병언 기자

2025년 06월 26일(목) 19:33

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지난 23일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, '농촌 집 고쳐주기' 행복충전활동을 진행했다.

'농촌 집 고쳐주기'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, 다솜둥지복지재단,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.

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직원 20여명은 홀몸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찾아 자재 나르기, 폐기물 정리 및 주변 청소 등을 하며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.

이동호 지사장은 "농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/보성=임병언 기자

보성=임병언 기자

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(**www.kjdaily.com**)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.

URL : http://www.www.kjdaily.com/1750934004658826062
프린트 시간 : 2025년 10월 27일 09:40:52